

사회인들의 가을야구 ... '꿈의 리그' 열린다



사회인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제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16일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해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재규어스와 슬러거스의 지왕리그 결승경기.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 주최 제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47팀 16일 "플레이볼"

천왕·지왕·인왕리그에 전남리그 첫 참여
무등야구장·OB구장에서 '3개월 대장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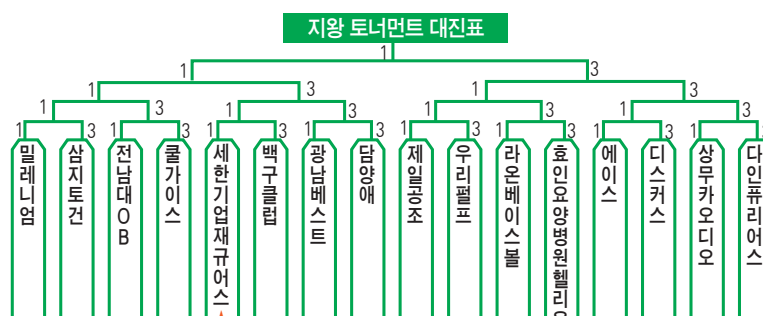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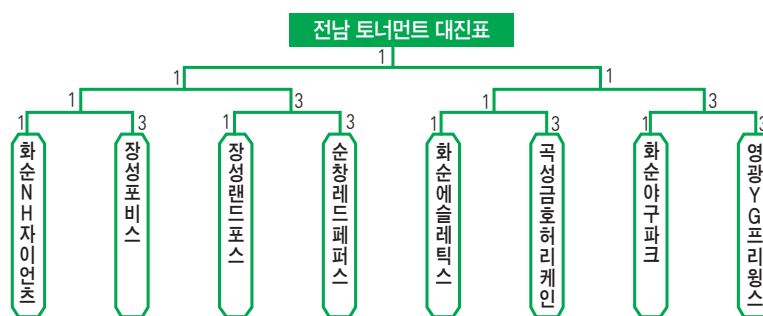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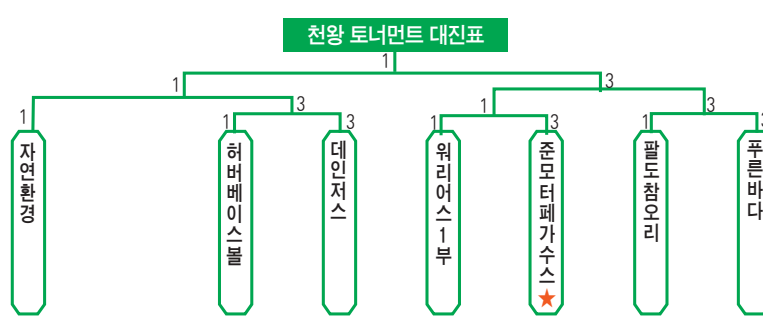
광주·전남 사회인야구의 '가을잔치'가 벌어진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오는 16일 OB구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3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무등경기장, OB구장 등에서 11월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회에는 총 47개팀이 참가해 야구 열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초대 대회는 천왕·지왕·인왕리그로 나눠 치러졌지만 전남리그가 새로 추가되면서 올 시즌에는 4개의 우승팀이 탄생하게 된다.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최근 무등빌딩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진 추첨을 통해 대회 첫 격돌을 벌일 팀들이 결정됐다.
대회가 개막하는 16일에는 지왕리그 4경기가 펼쳐진다.
개막식에 앞서 오전 7시 밀레니엄과 삼지토건의 대회 첫 경기가 열리며, 오후 12시에는 전남대 OB와 롤가이스가 한관 승부를 벌인다.
오후 2시에 예정된 제 3경기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세한기업재규어스와 '전통의 강호' 백구클럽이 맞붙어 미

리보는 결승전이 될 전망이다.
광남베스트와 답양에는 오후 4시 첫 승을 놓고 경기를 치른다.
선수 등록에 제한이 없는 천왕리그에는 투·포수를 제외한 포지션에 2명의 선수 출신이 출전할 수 있어 수준 높은 경기가 기대된다.
지왕·인왕·전남리그에는 선수출신이 등록할 수 없지만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조직력의 야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각 리그의 우승상금은 50만원이며 트로피와 우승메달도 수여된다. 준우승팀에게는 30만원의 상금, 트로피, 준우승메달이 주어진다. 공동 3위팀에게는 메달과 시합구 1타가 부상으로 증정된다.
개인 시상도 이뤄진다.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10만원, 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5만원이 증정된다. 심판상 수상자에게도 트로피와 10만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시야구협회와 광주시생활체육회야구협회가 주관하며, 광주시생활체육회·전남도생활체육회·KIA 타이거즈가 후원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대진추첨이 지난 28일 무등빌딩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는 전년도 우승 ☆는 전년도 준우승



호랑이, 죽음의 원정 7연전
꺼져가는 '4강 불씨' 살릴까

프로야구 전망대
롯데·SK·LG와 대결

2012 프로야구 중간순위

Table with 8 columns: 팀, 경기, 승, 패, 무승, 득점, 실점, 순위. Rows include teams like 삼성, 롯데, SK, 두산, KIA, 넥센, LG, and 한화.



소사

죽음의 7연전이 4강을 가른다.
'가을잔치'의 갈림길에 선 KIA 타이가가 7연전 고행길에 오른다. 롯데 라이언츠, SK 와이번스 그리고 LG 트윈스가 꺼져가는 4강 불씨의 앞날을 결정할 상대다.
KIA는 올 시즌 비에 20경기나 치르지 못하면서 8개 구단 중 가장 빠듯한 잔여경기 일정표를 받았다. 4월 시작에서 경기를 치르는 KIA는 안방으로 와서 5일부터 SK와 3연전을 벌인 뒤, 8일 잠실로 올라간다. LG와 8, 9, 10일 경기를 치러야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는 아찔한 일정이다.
지난주 1승3패로 2경기에서 적자를 본 만큼 4강 탈락 위기에 가장 큰 난관을 만난 셈이다.
팀을 지탱해왔던 선발진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운 7연전이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타선에 온탕과 냉탕을 오갔던 KIA는 그나마 큰 기복 없이 자리를 지켜준 선발진 덕에 근근이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선발의 힘만으로 버티기에 7연전은 험난하다.
지난 1일자로 엔트리가 확장됐지만 마땅한 선발자원이 없는 만큼 선동열 감독은 기존 5명의 선발로 7연

전을 꾸리겠다는 생각이다.
소사·앤서니 두 외국인 투수의 임무가 막중하다. 선 감독은 4일 로테이션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소사와 앤서니를 이번 7연전에서 두 차례 기용할 예정이다.
소사가 먼저 롯데 이정민과 맞붙는다. 롯데는 소사 연승의 출발점이고 또 연패의 시작점이다.
소사는 7월12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7이닝 1실점(비자책)의 호투로 시즌 4승을 기록한 뒤 4연승 행진을 달렸다. 그러나 8월11일 다시 만난 롯데에 냉탕을 오갔던 KIA는 그나마 큰 기복 없이 자리를 지켜준 선발진 덕에 근근이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선발의 힘만으로 버티기에 7연전은 험난하다.
지난 1일자로 엔트리가 확장됐지만 마땅한 선발자원이 없는 만큼 선동열 감독은 기존 5명의 선발로 7연

있을지가 관건이다.
KIA는 2일 한화원정에서 김선빈·나지완·김상훈의 홈런포를 포함, 장단 17안타로 12점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앞선 3경기에서 KIA 타선이 만든 점수는 2점에 불과했다. 삼성 윤성환, 한화 류현진이 출격할 경기에서 각각 0-4, 0-3의 영봉패를 당했고 에이스 윤석민이 등판한 날에도 2점을 합작하는데 그쳤다.
예측불허의 타선이 선발진의 짐을 얼마만큼 들어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전남 드래곤즈 '강등권 탈출 전쟁'

15일 하위그룹 첫 대결
승점 2점차 ... 사활승부

강등권 탈출을 위한 '호남더비'가 펼쳐진다.
스플릿 시스템으로 열리는 2012 K리그 31~44라운드 일정이 3일 확정됐다.
오는 15일과 16일 재개되는 경기에서는 경남-울산, 수원-포항, 부산-서울, 제주-전북이 상위팀인 '그룹 A'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하위팀인 '그룹

B'에서는 성남-대전, 대구-상주, 인천-강원의 대진이 확정됐다. 6승9무15패(승점 27), 정규리그 14위로 그룹 B에 편성된 광주 FC는 15일 오후 3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스플릿 시스템 첫 경기를 치른다.
정규리그에서 12위를 기록한 전남은 승점 29점으로 광주와 2점차 밖에 나지 않는다. 정규리그 점수를 그대로 안고 가는 만큼 '호남더비' 결과에 따라 두 팀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한편 30라운드 정규리그 결과에 따라 1~8위팀이 그룹 A, 9~16팀이

그룹 B로 나누어진 가운데 그룹별로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팀당 14경기씩 더 치러 최종 순위를 가린다.
마지막 44라운드는 12월 1일과 12월 2일 각각 그룹 B와 그룹 A 경기로 분리되어 진행된다.
그룹 A 최후의 승자가 K리그 우승의 영예를 안게 되고, 3위까지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다. 내년 시즌 시행되는 승강제에 따라 그룹B의 하위 2팀은 2부로 강등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버튼, F1 벨기에 그랑프리 우승

F1국제자동차경주 벨기에 대회에서 젠슨 버튼(영국·맥라렌·사진)이 우승하며, 올해 2번째 정상에 올랐다.
버튼은 지난 2일 벨기에 스파-프랑코샹 경주장에서 열린 F1 12차전 벨기에대회에서 경주장 44바퀴(총 308.052km)를 1시간29분08초530의 기록으로 주행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올해 호주 개막전에 우승하며, 좋은 출발을 보인 이후로 부진했던 버튼은 이번 대회에서 예·결선 1위(폴아웃 승리)를 가져갔다.
지난해 2연속 월드챔피언 세바스찬 베텔(레드불)이 2위, 키미 라이코넨(로터스)이 3위를 기록하며 시상대(포디움)에 올랐다. 개인 통산 300번째 경주로 관심을 모았던 미하엘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는 7위를 기록하며 점수 획득에 만족해야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승 후보 페르난도 알론소와 루이스 해밀턴은 상호 충돌로 중도 하차(리타이어)했다.
이로써 올 시즌 선수별 순위는 알론소가 164점으로 여전히 선두를 지켰고, 세바스찬 베텔이 140점, 마크 웨버(호주)가 132점으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벨기에대회 우승자인 버튼은 101점으로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올랐다.
한편 올 한국대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영암 F1 경주장에서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